

# “의병 정신 계승”... 의향 나주 성역화 박차



### 내년 6월 '의병의 날' 정부 기념식 개최지 확정 전남도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 사업지 선정

나주가 의향(義鄕)으로 뿌리를 내린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 사업지로 선정된 데 이어 내년 6월1일 열리는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확정됐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제11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 공모'에서 나주가 최종 선정됐다. 대한민국 의병의 날은 호국보훈의 달의 첫날인 6월1일이다. 의병의 날은 구국에 앞장섰던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일깨워 애국정신을 계승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돼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

### '의병의 날' 화합·축제의 장으로 의병 출정식 재현·음악회·전시회 학교 순회교육·글짓기 등 예정

최하고 있다. 의병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행안부가 공모를 통해 개최지를 선정한다. 행안부는 지난 4월 한 달간 개최지 공모를 통해 나주시와 보성군, 울산 북구, 충남 부여 등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나주시를 최종 개최지로 선정했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 6일 전남도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1순위에 이어 정부 주관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에 선정되면서 호남을 넘어 전국에 으뜸가는 의향(義鄕) 도시의 명성을 다시금 공고히 했다. 나주는 1592년 임진왜란 발발 후 전국 최초 근왕 의병을 일으켜 한양을 수복하고 호남을 지켜냈던 전라도 의병 정신의 산실로 꼽힌다. 또 호남 최초의 의병장으로 이름을 날린 '건재(健齋) 김천일' 선생을 시작으로, 구한말 호남의병의 최초 장의지이자, 호남에서 가장 많은 의병과 서훈자를 배출한 명실공히 호남의 의향(義鄕)으로 자리

매김했다. 일제강점기 3대 항일운동으로 꼽히는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진원지도 나주다. 의병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내년은 나주가 군(郡)에서 시(市)로 승격된지 40주년을 맞는 해다. 나주시는 시 승격 40주년과 연계해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시민·출향향우·의병문중 및 기관단체 등 각계각층을 총망라해 나주의병정신을 토대로 지역 발전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기념행사는 내년 6월1일 임진왜란 의병장 김천일 장군이 출병했던 금성관(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37호)을 비롯해 정렬사, 나주향교,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등지에서 펼쳐진다. '우리 모두 의병'을 주제로 의병 출정식 재현, 기념음악회, 학술포럼, 체험·전시회 등 다채롭다. 또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를 '의병의 달'로 지정하고 학교별 순회교육, 글짓기 대회, 의병 깃발 만들기 등 학생들의 의향정신 고취를 위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전라도 의향정신은 전라도 중심지였던 나주의 선비정신과 경제적 기반 위에서 태동했으며, 임진왜란에서 해방에 이르기까지 나주인은 역사의 주인으로 활약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남도역사공원 조성과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전년 나주의 새로운 희망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bson@kwangju.co.kr



임진왜란 최초 의병을 일으킨 김천일의 의병장 동상(위)과 내년 6월1일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인 나주 금성관. (광주일보 자료 사진)

## “의병공원 사업 군비 부담 과다” 보성군 2순위 자격 포기

김철우 보성군수는 "전남도의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 2순위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포기한다"고 14일 밝혔다. 김군수는 이날 "남도의병 역사공원 사업의 군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곧 군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성군은 남도의병 역사공원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0%, 운영비 0%로 기재해 공모사업에 참여했는데 2순위에 오른 것은 사실상 1순위에 다름없다"고 자평했다. 김군수는 "앞으로도 의병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자체 사업을 더욱 활발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도의병 역사공원은 전남도 시책 사업으로 애초에는 국비와 도비로 역사공원 건립과 운영비를 충당하고, 사업부지는 해당 시군이 매입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전남도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시군은 총사업비 480억원 중 30% (150억원 추정)와 연간 12억원의 시설운영비, 33만㎡ 부지 매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으로 바뀌었다. 공모에서는 도내 8개 시군이 참여해 우선협상 대상자에 나주시가 1순위, 보성군이 2순위로 선정됐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신안·강진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

### 신안 3년 연속·강진 2년 연속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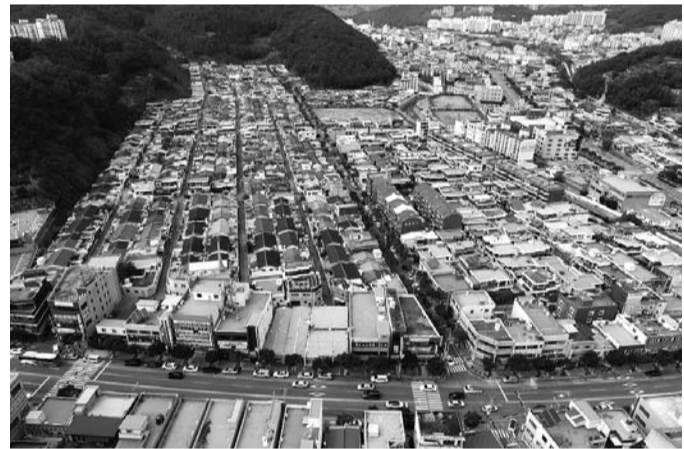
신안군과 강진군이 행정안전부의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신안군은 전남 22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강진군은 2년 연속 전국 군단위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신안군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인 1892억원의 157%인 2972억원, 소비·투자 분야 목표액 2024억원의 124%인 2518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신안군은 지난해부터 인허가, 공유재산 심의, 토지보상 등 사전 행정절차를 점검·이행하며 신속한 계약과 착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기적인 집행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진사업을 특별 관리하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평가는 신안군이 그동안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 종합복지서비스 및 생활 SOC 확충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조기 회복을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총력을 기울인 성과로 풀이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하반기에도 경제 비상시국이

라는 인식 하에 모든 직원이 힘을 합쳐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신속집행, 소비·투자, 일자리사업 등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아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강진군은 연초부터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군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점검하는 등 신속 집행을 적극 시행했다. 또 부군수를 단장으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부진사업별 대책보고회를 매주 개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부서별 일일 신속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등 집행을 제고에 힘을 썼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속집행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입찰기한 단축, 선금금 지급 확대, 일감상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을 적극 활용해 모든 부서가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신속하게 예산을 투입해 집행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이런 좋은 결과가 군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여수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화

### 450여 가구 집수리·소방도로 개설·주차장 확대 등

여수시가 이달부터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뉴딜 사업을 통해 450가구의 주택을 수리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해 차량 이동이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1986년 세계은행 산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으로 조성된 노후주택단지인 문수지역은 지난 2018년 뉴딜사업 공모 선정 이후 국토교통부의 실현 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쳤다. 이어 2019년 12월30일 활성화 계획을 고시했으며, 지난 달까지 집수리 수요조사 및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했다. 집수리 사업은 1000만원 한도에서 자부담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현재까지 450여 가구가 신청했다. 주택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2022년까지 옥상방수, 외벽, 창호, 대문, 담장 보수를 추진한다. 앞서 뉴딜사업과 연계해 224억원을 들여 올해 안에 소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건물 철거를 마쳤으며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관로 매설을 추진 중이다.



여수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2차로의 차도와 노면 주차장 312면을 확보해 주택단지 내 교통 체증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는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어울림 센터, 청년 창업 시설, 게스트하우스, 주차장, 텃밭 등 하드웨어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본격화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구충곤 화순군수 “코로나19 비상시국”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

구충곤(사진) 화순군수가 14일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특별지시했다. 구 군수는 공직자 준수 사항으로 타지역 방문 자제, 당구장·피시방·노래방·주점 등 감염 우려가 높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 출입 금지, 소규모 종교 모임·방문 판매 등 밀폐 장소 참석 금지, 외출과 개인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을 강조했다. 구 군수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골프를 금지하라"며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화순군은 특별지시와 관련해 '공직기강 확립 집중감찰'을 벌여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 모던 스타일 Modern!

### 클래식 스타일 Classic!

###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